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8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5월 26일(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 3년, 로비농성 5달

콘티넨탈의 로비농성도 벌써 5달째다. 3년째 이어지는 임금차별과 금속노조 탄압,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해 로비농성을 시작했지만 콘티넨탈 자본은 해결의 의지조차 없다. 농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자에 대해 출입금지 신청을 하고 1일 위반시마다 100만원의 강제금을 물리고 있다. 수석부지부장과 지회장이 로비농성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돈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치졸한 수법은 끝이 없다. 그러나 로비농성 방해한다고 못 싸울 금속노조가 아니다. 이제 콘티넨탈 지회는 본사로 간다.

본사가 책임져라!

콘티넨탈이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인 창조컨설팅과 금융 거래한 내역을 보면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조파괴가 본사 차원에서 계획되고 승인된 것이다. 3년째 현장이 이렇게 혼란한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점만 봐도 본사 차원에서 노조파괴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게 만든다.

이 와중에도 콘티넨탈 자본은 신규 수주를 들먹이며 로비 농성을 철거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신규수주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금속노조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지금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이미 어용노조에게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것도 못하겠다는 건 신규 수주를 핑계로 금속노조를 다시 한 번 탄압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

콘티넨탈 자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처럼 금속노조와 극한 대립만 할 생각이라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본사투쟁은 전 조합원이 결의한 사항이다. 그만큼 지회의 투쟁의지는 확고하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행동은 콘티넨탈 자본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

열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포스코 사내하청 EG테크분회의 고 양우권 열사와 하이디스지회의 고 배재형 열사의 뜻을 잇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전남, 광양의 시민들도 포스코의 무자비한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있다. 광양,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39곳과 시의원 등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포스코와 EG테크의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포스코의 무노조, 노조말살 경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시민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디스지회는 대만영사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부청사를 상대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자본이 기술만 빼먹고 먹튀행각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정부, 그런 자본의 인사노무 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회는 25일 3차 대만원정투쟁에 나섰다. 이번에는 사태해결 될때까지 무기한 원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기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일시 : 5월 27일(수) 16시00분
○장소 : 서울 남부지검 앞

6차 지부교섭

○일시 : 5월 28일(목) 14시00분
○장소 : 코스모링크